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8 pp. 523-538,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8.52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문화예술 전공자의 전공진로결정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매개를 중심으로-

임재훈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Career Decision and Life Quality for Students majoring in Culture and Arts
-Focused on the intermediary effect of government trust-

Jae Hoon Rhim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정부정책과 정부신뢰 수준이 전공진로결정과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201개의 유효한 표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AMOS 26.0을 활용하여 확인요인분석 및 구조모형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정부기관의 문화예술정책을 구성하는 요인 중 문화예술정책 혜택의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예술 정책의 혜택인식은 직접적으로 전공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인식은 삶의 질 평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진로결정은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대학생의 전공진로 결정은 정부신뢰의 매개에 의해 영향 받기보다는 정책의 혜택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삶의 질은 정책의 공정성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정부정책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삶의 질 판단과의 연향관계를 탐구하였다는 기초적인 학문적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계점을 안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 변수의 확장, 조사대상자 확장 등의 시도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who are currently majoring in culture and ar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level of government trust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affect their major career decisions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are as follows. First , the recognition of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policy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definition of government trust. And then, the recognition of the benefits offered by the policy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areer decisions. As the next finding, the fairness of policy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Lastly, major career decision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Despite the significant academic contributions to this study, it seems that more extended subjects and variabl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 Government Policy, Policy's Benefit, Policy's Fairness, Government Trust, Career Decision, Quality of Life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ae Hoon Rhim(Dankook University)
email: sosaworld@daum.net
Received June 25, 2021 Revised August 4, 2021
Accepted August 5,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과 경제난의 가중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린 직업선택의 비전을 갖거나 취업만을 생각하며 전공과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떠한 구체적인 직업선택의 방향 없이 막연히 학업에 임하기도 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고자 관련정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경우 직업적 안정성의 문제로 인해 전공보다는 졸업 후 본인의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애초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정부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전공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년층의 삶의 질이 정부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청년층을 형성하는 대학생, 특히 다른 분야에서처럼 직업적 안정성과 비전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로의 진로결정과 삶의 질의 판단은 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서 정부정책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 정부신뢰의 중요성의 의미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Bianco(1994)와 Evans(1996)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정부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36, 41].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 상호 신뢰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은 정책 수립과 이행을 힘들게 하고 혼란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며 결국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까지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낮은 정부신뢰는 향후 미래세대의 직업과 비전을 만들어감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델만 리서치(Edelman Research, 2020)의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기준 각국의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응답자의 82%가 정부기관을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인도(79%), 호주(61%), 캐나다(59%), 독일(59%) 순으로 절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응답자의 절반 수준(50%)에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 19 등에서 영향을 받은 2020년의 경우 정부신뢰 수준이 67%로 전년대비 16% 상승한 바 있다[58]. 한국의 경우 정부신뢰가 대통령으로부터 인식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21년 4월 조사 기준 현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부정평가가 7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60.7%, 18~29세 59.9%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부정평가가 66.2%이었고, 여성의 부정평가가 57.3%로 남자의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59]. 특이점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청년세대인 20-30대 연령층에서 정부의 향방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40-50대 보다 더 높은 부정평가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세대별, 성별 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책임지게 될 청년층으로부터 정부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가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미래세대의 중심이 되는 대학생의 전공진로결정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특히 전공분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문화예술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전공 대학생의 전공진로 의사결정과 삶의 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정부의 정책과 신뢰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정책효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헌신하는 종사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하는 예비 전문 인력이 자신의 전공과 향후 선택하게 될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몰입의식이 강할 때 한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의 성공과 발전 및 정부신뢰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그들이 인식하는 정부정책과 정부신뢰 수준이 전공진로결정과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예술전공 대학생의 전공진로결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을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혜택과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소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문화예술계열 전공 대학생의 전공진로결정과 삶의 질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될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진로결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의 정책연구는 통상적으로 정치, 행정적인 분야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여부를 측정하는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진데 비해 본 연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직업적 선택이 쉽지 않은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고, 특히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한데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탐구

2.1 정부정책

정부정책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편이다. 먼저 정부가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배정현, 2013). 이 설명에 따르면 정부불신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구하거나 원하는 정책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정부성과와 관련된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slaner(2001)는 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정책과정이나 절차에 초점을 둔 정부신뢰에 대한 설명도 있다[56].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5].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인지된 공정성을 말한다[42]. Greenberg는 절차적 공정성을 공식적 절차 자체의 특성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이 어떻게 취급되는가 하는 개인 간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Tyler(2001)는 정부신뢰는 정책 결과나 혜택보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54]. 이 설명에 따르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부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관련 이익을 고려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정현, 2013). 황아란·서복경(2015)은 절차적 성과와 과정적 성과로 구분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35]. 따라서 정책은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의 혜택과 과정적인 측면에서 절차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를 결과적 혜택과 과정적 공정성에 중심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자원이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38]. 또한 정부신뢰가 낮을 경우 국가와 사회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정부신뢰가 높으면 정부당국자들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54], 정부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45]. 따라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정부신뢰는 사회 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47].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투자가치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57]. 특히, 21세기 행정 및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국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 이상의 정부신뢰가 필수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한 관점에 따라 정부신뢰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20]. Miller(1974)는 정부신뢰의 개념을 통치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하여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48]. 반면에 Citrin(1974)는 정부신뢰가 집권당국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8]. 정부신뢰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합의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신뢰가 정치적 태도의 일종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23]. 이헌수(1999)는 정부신뢰는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23],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이헌수(1999)의 정의를 활용하여 정부신뢰를 개념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전공진로결정

진로결정이란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전공을 바탕으로 한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장래 진로 방향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한다[1]. 또한 자신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표출되는 진행수준과 장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다. 즉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성공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 정도,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직업이 확고부동하게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진로결정수준이 된다[19]. 이러한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은 진로에 대한 확실한 결정과 진로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진로미결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52].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동일 집단임에도 자신의 진로 결정을 확실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특정 학생들은 불확실 상태에 있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다[52].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공 진로결정은 전공을 살린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본다[5]. 따라서 전공 진로결정은 대학의 전공을 살린 직업선택의 확신 정도, 개인적 특수성이나 기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또는 미결정 정도에 대한 반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개괄하는 개념이 되며, 학생들의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향후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24].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의 전공 진로결정은 대학의 전공 특성이 반영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결정 방향과 직업선택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식 가능한 확신의 정도라고 개념화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4 삶의 질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 생활 조건의 수준 혹은 정도와 곡 비례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이 어느 수준까지는 객관적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인간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행복한가? 혹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삶의 질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발견해왔고, 또한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 또는 삶의 질에 대하여 연구해오고 있다[39].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삶의 질이란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문화, 교육, 관습 등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그들의 목표, 관심분야, 기대수준, 기준 등이 상이한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하며,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경제적인 수준, 심리적 만족감,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사회적인 복지수준 등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삶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다[4]. 지명원과 조태영(2012)은 삶의 질 수준의 평가를 수입수준, 주거지환경, 건강, 교육 등 객관적 개념을 기초로 한 변인들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이처럼 삶의 질은 개인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만족하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주로 주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관적 지표 중심의 기준은 연구자별로 상이한데,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 변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행복감과 만족감이다[28]. 삶의 만족은 일반적으로 행복 혹은 만족의 단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한 개인의 정신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안정감과 평온에 영향을 주며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과 집단 복지에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7].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개인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개인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10].

2.5 선행연구 검토

Easton(1963)은 제도와 물질적 가치관은 상호 호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는 정부기관의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40]. 박희봉·이영란(2012)은 시민문화와 제도 및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신뢰를 연구하였는데,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배정현(2013)은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혜택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정부신뢰를 전통적 정부신뢰,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로서 정부신뢰,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행정기관의 평가를 통한 정부만족도로서의 신뢰라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전통적 방식의 정부신뢰 방식과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로서 정부신뢰의 경우에는 절차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행정기관의 평가를 통한 정부신뢰는 정책혜택에 대한 인식과 공정성 모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신상준·이숙종(2013)은 공정성을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세분화하고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신상준·이숙종(2013)은 정부신뢰의 측정지표를 현 정부에 관해 측정했는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5]. 이지호·이현우(2015)는 정부신뢰의 요소를 반응성, 효율성, 공정성으로 한정하여 서구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부신뢰는 국민들의 의지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22]. 이헌수(1999)는 관료의 능력, 성실, 공정, 호의, 규제시행으로 신뢰를 측정하여 이러한 요소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3]. 이양수(2008)는 공직자가 청렴하다고 믿을수록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역할신뢰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하였다[20]. 전대성·권일응·정관호(2013) 등은 정부정책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례를 연구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이 후 정부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대통령 개인의 영향은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6]. 류태건(2016)은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정부신뢰를 연구하였는데, 남성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

이와 함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은선·김종표·이종찬(2018)은 개인이 선택한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에서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했고, 진로결정 수준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도 상향되며, 자신의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 역시 철저히 한다고 하였다[6]. 차성미(2017)는 Bandura(1977)가 밝힌 연구[36]를 통해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을 계획, 실행 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따르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고, 목표설정, 문제해결, 자기평가, 계획수립, 직업정보 수집 등의 5개 요인으로 분석했다[30]. 서경화(2017)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어려운 진로 환경에서도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며 극복함으로서 스스로 진로목표를 성취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문제해결 전략을 혁신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14]. 정영미(2018)의 연구는 항공관광전공 대학생의 교수지지 인식정도를 분석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검증했다[27]. 오수경과 김철원·이태숙(2018)은 MICE 운영 요원의 직무역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직무역량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김기중(2020)은 이러한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진로결정수준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로결정수준은 삶의 행복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3].

한편, 정부정책 및 정부신뢰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 이윤행(2020)은 지방정부 질이 정부역할 기대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1]. 또한 이동익(2015)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감이 정책신뢰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책신뢰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고,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안전생활 만족과 경제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8]. 이처럼 정부정책과 정부신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정부정책과 정부신뢰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조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문화예술전공 대학생의 전공진로 결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정부기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에 대한 혜택 인식과 공정성 인식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화예술 전공 대학생의 전공진로 결정과 삶의 질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미래시대를 짊어질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삶의 질 판단에 미칠 영향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파악과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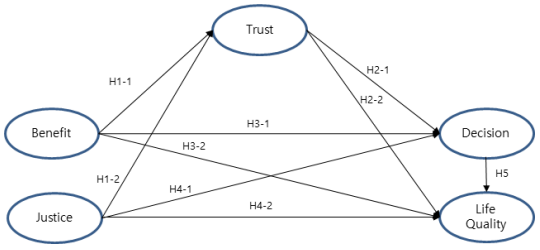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3.2.1 정책 혜택과 정책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인식에 의해 정부신뢰가 결정된다는 실증연구 중 Uslaner(2001)는 정권을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6]. Miller(1974)는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정부신뢰의 하락 요인임을 밝혀냈다. 또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고 하였다[48]. 정책과정이나 절차에 초점을 둔 정부신뢰에 대한 설명도 있다. 조직구성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이 인지한 절차의 공정성을 말한다[42]. Tyler(2001)는 정부신뢰는 정책 결과나 혜택보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54]. 또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게 되므로 정부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배정현, 2013). 배정현(2013)은 절차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황아란·서복경(2015)은 정부정책을 절차적 성과와 과정적 성과로 구분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3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H1 : 문화예술 정책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문화예술정책의 혜택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정부신뢰와 전공 진로결정 및 삶의 질 인식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신뢰관계의 형성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되어 왔다. 신뢰의 조직 내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들에서 신뢰는 직원들 간의 상호 교환관계의 강화 및 상호 협력을 유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44]. 또한 직무와 삶에 대한 만족, 조직에 대한 몰입, 근면성,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능력 향상, 이직률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협력에 의한 팀워크의 강화로 전체적인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따라서 국가라는 조직 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몰입과 만족, 그리고 직업에 대한 만족과 몰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삶의 만족과 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H2 : 정부신뢰는 전공진로 결정과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정부신뢰는 전공진로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정부신뢰는 삶의 질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정책인식과 전공 진로결정 및 삶의 질 인식과의 영향관계

정부정책이 주는 혜택과 지원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진로결정이나 창업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나아가 창업

과 진로결정의 실행을 촉구하는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31]. 또한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볼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지지하는 심리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 즉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의 규범적 기대감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9]. 차화슥(2012)은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이 창업의지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고[31], 이동익(2015)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정책은 안전생활 만족과 경제생활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1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정부정책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3과 4를 설정하였다.

H3 : 정부정책은 전공진로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 정부정책의 혜택 인식은 전공진로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정부정책의 공정성 인식은 전공진로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정부정책은 삶의 질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 정부정책의 혜택 인식은 삶의 질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 정부정책의 공정성 인식은 삶의 질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전공 진로결정과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을 설계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에 자신의 적성,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들과 청년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탐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은 자기 스스로가 진로에 해당되는 특정한 과제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하고, 이는 진로결정수준과도 연결된다[25]. Taylor와 Betz(1983)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감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기중(2020)은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성취목표 성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관한 구조적 관계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축구선수의 진로결정 수준과 심리적 행복감의 정(+)적 인과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진로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신념은 삶의 행복, 만족, 자신감 등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가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5를 설정하였다.

H5 : 전공에 대한 진로결정 수준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정의와 측정

3.3.1 정부신뢰의 정의와 측정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Norris(1999)는 정부신뢰의 개념을 통치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평가 측면과, 당국으로서의 정부에 대한 평가로 나누었다. 그리고 정부신뢰는 통치제도로서의 정부 평가 측면과 당국으로서의 정부평가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50]. 정부신뢰도의 측정은 미시간대학 선거연구소(NES)의 정부신뢰 지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NES는 1958년 최초로 정부신뢰 지표를 사용해 경험조사를 실시했고 측정항목은 총 5가지였다. 제 1문항은 정부가 어느 정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제 2문항은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지, 제 3문항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 4문항에서는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5문항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명한지 우둔한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국내에서 박종민·배정현(2011)은 NES의 이러한 정부신뢰 측정지표 중 제 1문항과 제 2문항을 조합하여 정부에 대한 만족 및 제도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직접 묻는 질문으로 나누어서 정부신뢰를 측정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분분한 편이다. 윤영채·임재훈(2018)은 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측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를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17]. 본 연구에서의 정부신뢰의 측정은 이

러한 윤영채·임재훈(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3.3.2 정책혜택의 측정

본 연구에서 정책혜택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했는가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은 정책혜택을 많이 받더라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경우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혜택의 인식 혹은 만족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윤영채·임재훈, 2018). 또한 어떤 특정 정책을 선정하여 그 정책으로부터 주관적 혜택 인식 수준과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비록 특정 정책을 선정하여 혜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경우 다른 정책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정책을 선정하되 타 집단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정책을 통해 측정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정책 대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분야와 집단으로 진행되고, 그 정책 집행의 결과로 혜택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과 연결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혜택에 관한 주관적 느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종민·배정현(2011)과 윤영채·임재훈(2018)이 사용한 4가지 측정항목을 가지고 정책 혜택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를 사용하였다.

3.3.3 정책 공정성의 측정

정책공정성은 정책과 관련된 공정성의 인식으로, 정책에 내재된 가치,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 논리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Rawls(2001)는 정책공정성을 정책의 정의라 표현하고 이에 대한 원칙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첫째는, 모든 이들은 타인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누리는 정책적 권리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은 최소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6]. 이러한 정책 공정성은 정책과정이나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정책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그것이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Tyler 2001). 즉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합리적 선택 외에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는 결정하려는 내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공정성을 중심으로 정책공정성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최예나(2018)의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연구에서 사용한 4가지의 정책공정성 측정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3].

3.3.4 전공 진로결정의 측정

진로결정은 대학의 전공과 직업선택의 확신 정도, 또는 미결정 정도에 대한 반작용 등을 포괄적으로 개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전공 진로결정은 학생들의 전공의 학업 성취도와 이를 통한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향후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의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24]. 따라서 전공 진로결정이란 자신의 전공을 살린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으로서 미래진로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전공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그에 합당한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전공 대학생의 전공 진로결정을 자신의 전공을 살린 진로결정 방향과 직업선택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인식 가능한 확신의 정도로 개념화 하고, 임혜영(2018)이 전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결정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25].

3.3.5 삶의 질 측정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또한 국가나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하게 된다. 삶의 질은 대체로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보다 일관

성이 높다는 이유를 근거로 물리적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34]. Myers(1987)는 개인의 복지를 강조하는 측면과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객관적인 삶의 질은 주로 사회경제적 지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49]. Olsen & Merwin(1977)은 삶의 질을 주관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즉 삶의 질은 규범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Olsen & Merwin(1977)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감 등으로 표현하였다[51]. 최준호(2001)는 객관적인 삶의 질이란 양적인 기준이며 상대적인 개념이고 비교가 가능한 개념임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이란 질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되므로 상대적 비교가 어렵다고 하였다[34]. 본 연구에서는 Olsen & Merwin(1977)의 연구를 참조하여 삶의 질을 주관적 삶의 질로 개념화하고[51], 최수남(2014)이 복지관광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32].

3.4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문화예술분야 전공이 설치된 전국 10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약 300부의 설문서를 배포하여 수거하는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수거된 설문서중 불성실하게 기입하였거나 결측치가 발생한 설문을 제거하고 남은 201부의 설문서를 가지고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와 AMO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수집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각각의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에 앞서 각 요인간의 관련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이후에 본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영향관계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분석이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에 사용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변수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n=201)

Classification		n	%	Model
Gender	M	74	36.8	skewness=-0.551 kurtosis=-1.714
	F	127	63.2	
Grade	1	42	20.9	skewness=0.132 kurtosis=-1.237
	2	69	34.3	
	3	42	20.9	
	4	48	23.9	
Major	Drama	37	18.4	skewness=0.200 kurtosis=-1.334
	Movie	61	30.3	
	Music	27	13.4	
	Fine Arts	36	17.9	
	Others	40	19.9	
Career	Actor/Player	62	30.8	skewness=0.111 kurtosis=-1.593
	Director	49	24.4	
	Planning	25	12.4	
	Others	65	32.3	

4.1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통한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유효표본 201명 중 남학생은 74명(36.8%), 여학생은 127명(63.2%)으로 여학생의 분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가운데 2학년(69명, 34.3%)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4학년(48명, 23.9%)이 높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전공은 영화 전공이 61명(30.3%)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음악전공이 27명(13.4%)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활동희망 영역으로는 연기자나 연주자 등 실제 현장 예술인으로서의 영역을 희망하는 학생이 62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감독 및 연출 등의 영역을 희망하는 학생이 49명(24.4%), 기획 혹은 행정영역을 희망하는 학생은 25명(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구조,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은 전체적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측정항목들이 해당 요인에 대한 집중 타당성을 얼마나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델의 적합성도 확인할 수 있다. 구성타당성은 측정항목이 개념적 구조와의 연결이 적절한지를 확인함으로써 타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집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Factor	Items			Estimate	S.E.	C.R.	CCR	AVE
Policy Benefit	benefit4	<---	Benefit	.965			.967	.934
	benefit3	<---	Benefit	.972	.026	38.353**		
	benefit2	<---	Benefit	.966	.028	36.753**		
	benefit1	<---	Benefit	.963	.027	35.736**		
Policy Justice	justice4	<---	Justice	.795			.933	.876
	justice3	<---	Justice	.986	.059	18.000**		
	justice2	<---	Justice	.990	.061	18.121**		
	justice1	<---	Justice	.960	.064	17.217**		
Government Trust	trust4	<---	Trust	.978			.950	.903
	trust3	<---	Trust	.985	.020	49.776**		
	trust2	<---	Trust	.928	.030	30.764**		
	trust1	<---	Trust	.908	.035	27.543**		
Career Decision	decision6	<---	Decision	.792			.898	.811
	decision5	<---	Decision	.958	.062	16.864**		
	decision4	<---	Decision	.957	.061	16.848**		
	decision3	<---	Decision	.934	.062	16.212**		
	decision2	<---	Decision	.804	.077	13.077**		
	decision1	<---	Decision	.943	.061	16.467**		
Life Quality	lifequal1	<---	Lifequal	.918			.865	.753
	lifequal2	<---	Lifequal	.908	.047	22.037**		
	lifequal3	<---	Lifequal	.848	.050	18.330**		
	lifequal4	<---	Lifequal	.902	.048	21.611**		
	lifequal5	<---	Lifequal	.932	.049	23.903**		
	lifequal6	<---	Lifequal	.911	.057	22.278**		
	lifequal7	<---	Lifequal	.897	.053	21.219**		
	lifequal8	<---	Lifequal	.798	.061	16.020**		
	lifequal9	<---	Lifequal	.837	.059	17.812**		
	lifequal10	<---	Lifequal	.702	.064	12.652**		
Model Fit	CMIN(Chi-square) = 2067.878, Degrees of freedom = 844, p = .000, CMIN/DF=2.450, GFI = .915, AGFI = .893, NFI = .932, TLI = .896, CFI = .917, RMR = .039, RMSEA = .054							

**. p<0.01, *. p<0.05

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개념신뢰도(CC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AVE는 0.5를 상회해야 하고, CCR은 0.7을 상회해야 한다[43].

본 연구의 구성개념은 최종 7개 요인과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모형은 CMIN(Chi-square) = 2067.878 (df=844, p=.000), CMIN/DF=2.450(기준<0.3), GFI = .915, AGFI = .893, NFI = .932, TLI = .896, CFI = .917, RMR = .039, RMSEA = .054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적합성을 나타내는 모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개념 간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한편, 분석결과 구성개념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해주는 지표인 개념신뢰도(CCR)는 모든 요인에서 Form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0.7의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개념 간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해주는 지표인 평균분산추출값(AVE)도 모든 요인에서 기준치인 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념신뢰와 평균분산추출값이 모두 기준치를 상회함에 따라 집중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성개념 내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계수가 0.702~0.990으로 모두 0.5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성 역시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각 구성개념의 AVE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별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분석결과는 각 구성개념의 상관성과 함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Benefit, Justice, Trust 간, 그리고 Decision과 Life Quality 간에는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Benefit, Justice, Trust와 Decision 및 Life Quality 간에는 다소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Factor	Benefit	Justice	Trust	Decision	Life Quality
Benefit	1				
Justice	.965 (.931)	1			
Trust	.901 (.812)	.892 (.796)	1		
Decision	.234 (.054)	.168 (.028)	.198 (.039)	1	
Life Quality	.214 (.046)	.191 (.036)	.192 (.037)	.660 (.436)	1
AVE	.934	.876	.903	.811	.753

4.4 연구모형의 분석과 가설검증

4.4.1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문화예술정책이 정부신뢰와 배달서비스 품질요인이 브랜드 전공만족의 매개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efficient	S..Coefficient
Trust	<---	Benefit	.588	.581
Trust	<---	Justice	.338	.303
Decision	<---	Trust	-.119	-.123
Decision	<---	Benefit	.926	.948
Decision	<---	Justice	-.851	-.789
Lifequal	<---	Trust	.027	.031
Lifequal	<---	Benefit	-.507	-.591
Lifequal	<---	Justice	.590	.623
Lifequal	<---	Decision	.614	.700

	S.E.	C.R.	P
Trust	.185	3.181**	.001
Trust	.202	1.677	.094
Decision	.124	-.961	.336
Decision	.304	3.048**	.002
Decision	.319	-2.672**	.008
Lifequal	.113	.237	.813
Lifequal	.294	-1.724	.085
Lifequal	.305	1.983*	.043
Lifequal	.064	9.565**	***

Model Fit	CMIN(Chi-square) = 2173.305, Degrees of freedom = 846, p = .000, CMIN/DF=2.569, GFI = .951, AGFI = .899, NFI = .924, TLI = .957, CFI = .898, RMR = .032, RMSEA = .059

**. p<0.01, *. p<0.05

본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CMIN(Chi-square) = 2173.305(df=846, p=.000), CMIN/DF=2.569, GFI = .951, AGFI = .899, NFI = .924, TLI = .957, CFI = .898, RMR = .032, RMSEA = .059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대체로 적합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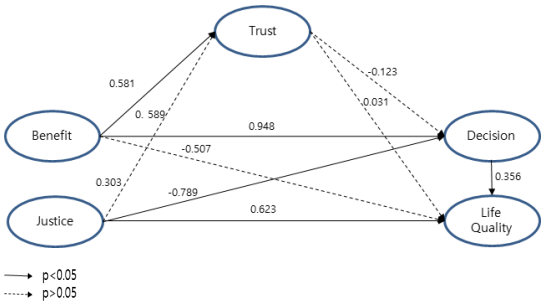

Fig. 2. Result of Research Model Analysis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에 대한 혜택과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혜택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으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못했다. 아울러 정책의 혜택과 공정성이 전공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혜택 요인은 진로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해 정책의 공정성은 전공 진로결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정책의 혜택과 공정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공정성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혜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설정한 정부신뢰는 전공진로 의사결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공진로에 대한 결정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2 구성개념 간의 직, 간접 및 총효과 분석

Table 5. Effect of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	Factor	Benefit	Justice
Total	Trust	.581	.303
	Decision	.876	-.827
	Life Quality	.041	.054
Direct	Trust	.581	.303
	Decision	.948	-.789
	Life Quality	-.591	.623
Indirect	Trust	.000	.000
	Decision	-.072	-.037
	Life Quality	.631	-.569

Effect	Trust	Decision	Life Quality
Total	.000	.000	.000
	-.123	.000	.000
	-.055	.700	.000
Direct	.000	.000	.000
	-.123	.000	.000
	.031	.700	.000
Indirect	.000	.000	.000
	.000	.000	.000
	-.086	.000	.000

구성개념별 영향관계의 직, 간접 및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Benefit은 Trust와 Decision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그리고 Life Quality에는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Justice는 Trust와 Life Quality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그리고 Decision에는 직접적인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Trust(신뢰)는 문화예술정책과 전공진로 의사결정 간 및, 문화예술정책과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에서 유효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의 매개변수가 되는 Deccision(전공진로 의사결정)은 Benefit과 Life Quality 간, 그리고 Justice와 Life Quality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의 문화예술정책과 정부신뢰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 문화예술정책을 구성하는 요인 중 문화예술정책 혜택의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매개변수인 정부신뢰가 전공진로선택이나 살의 질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문화예술 정책 중 정책의 혜택인식은 직접적으로 전공진로 결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인식은 전공진로결정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기관의 문화예술정책이 삶의 질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문화예술정책의 혜택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은 삶의 질 평가에 약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공진로결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 등의 이유로 인해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먼저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부기관의 문화예술정책을 구성하는 요인 중 문화예술정책 혜택의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Tyler(200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Tyler(2001)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결과나 혜택보다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복경(2015)은 정부정책의 절차적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바 있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정책의 혜택인식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의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라는 특정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정책의 공정성은 오히려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당사자들이 정책으로부터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이후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정책의 혜택인식은 전공을 살린 진로결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의 공정성은 오히려 전공을 살린 진로결정의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차화숙(2012)이 확인한 정부정책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정(+)의 영향[31]은 본 연구에서도 일부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나 정책의 공정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앞선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분야 예비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힌 이익집단과 단체 혹은 일반 국민들까지 동의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자칫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분산되거나, 전공을 통한 이익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작용됨으로써 전공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한 배정현(2013)의 연구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연계선상에서 정부정책의 혜택은 오히려 삶의 질의 평가에도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의 공정성은 삶의 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자들이 가지는 혜택을 담보한 정책은 본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삶의 질적 판단에 있어서는 보다 균형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이중적 잣대와 판단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적인 진로의 선택에는 전공으로 인한 정책적 혜택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상충된 사고와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고 생각하는 정(+)의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나 진로에 대한 결정이 확고할수록 직업에 대한 혼선과 방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삶의 질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고한 김기중(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Taylor와 Betz(1983)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삶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감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대학교육에서의 전공선택은 해당분야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예술 분야를 존중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혜택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해당분야의 대학생은 전공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이들이 참여한 공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해당분야의 종사자가 아니거나 해당분야와 관계가 없는 이익집단의 이익까지 고려한 지나친 절차적 공정성은 오히려 정책의 전문성을 감소시키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

해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수립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범위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국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혜택의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의 범위를 제안한 의미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조사 대상자의 편협성, 관련 변수의 한계성, 연구 변수 선정에서의 임의성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분야와 관련된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변수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고려된 변수의 설정 등을 통해 보단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c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2] K. A. Kim,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Work Valu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7.

[3] K. J.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iency, Psychological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High School Soccer Players*,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20.

[4] N. J. Kim, T. H. Kwon,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Women", *The Women's Studies*, Vol.0, No.1, pp.43-70, 2009.

[5]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1997.

[6] E. S. Kim, J. P. Kim, J. C.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Drama & Theatre majors in Credit Bank Syste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1, pp.131-151, 2018.

[7] H. S. Kim, Y. S. Lee, "Life Satisfaction among Marriage-Immigrant Women: Focusing on Social Context and Social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47, No.2, pp.177-209, 2013.

[8] T. G. Ryu, "Environmental Influential Factors of Trust in Government: An Empirical Analysis in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21, No.2, pp.217-242, 2016.

[9] K. S. Park, *A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y/Government Trust on the Degree of Policy Acceptance*,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10] S. U. Park, S. J. Yoon, Y. D. Choi,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Wellness, Psychological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Golf Participants", *Journal of Golf Sutdies*, Vol.10, N0.2, pp.25-22, 2016.

[11] C. M. Park, J. H. Bae, "Sources of Trust in Government: Policy Outcomes, Processes and Outputs",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Vol.17. N0.2, pp.117-142, 2011.

[12] H. B. Park, Y. R. Lee, "Impact on Government Trust of Civic Culture and Government Polic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4, No.4, pp.913-936, 2012.

[13] J. H. Bae, "Trust in Government according to Citizen`s Values and Characteristics: A Focus on Asian Countrie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1, No.3, pp.167-197, 2013.

[14] K. H. Seo,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Culinary Major Students",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Vol.23, No.2, pp.146-158, 2017.

[15] S. J. Shin, S. J. Lee, "nfluence of government justice perceptions on trust in govern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erformanc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50, No.2, pp.1-37, 2016.

[16] S. K. Oh, C. W. Kim, T. S. Lee, "A Study on Effects of the MICE Supporters' Job Competence Awareness on Job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30, No.3, pp.65-84, 2018.

[17] J. H. Lim, Y. C. Yoon,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y Satisfaction on Trust in Govern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ureaucratic Trus",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Vol.27, No.1, pp.39-71, 2018.

[18] D. I. Lee, *Effects of Citizen's Social Interaction Anxiety for a Safer and Security City on the Public Trust About Policy and the Quality of Life*, Master's thesis, Seoul Venture University of Seoul, 2015.

[19] S. G. Le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tatus across High Schoolers, Undergraduates, and Gend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217-230, 2008.

[20] Y. S. Lee,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overnment Role Trust",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Vol.2008, No.03, pp.3-23, 2008.

[21] Y. H. Le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Quality on Government Role Expectations and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2020.

[22] J. H. Lee, H. W. Lee, "Measurement and Korean Implication of Trust in Government: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Impartiality", Journal of Korean Politics, Vol.24, No.3, pp.1-28, 2015.

[23] H. S. Le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ublic Trust in Public Administr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3, No.2, pp.37-56, 1999.

[24] E. M. Lim, S. S. Jang, "The immediate and continuous effects of career information exploration program using interne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8, No.4, pp.139-154, 2004.

[25] H. Y. Lim, *The Effect of Vocational Values and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8.

[26] D. S. Jun, I. O. Kwon, K. H. Jung, "The Study of Trust in Govern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fidence in President and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22, No.2, pp.181-206, 2013.

[27] Y. M. Jung,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tourism",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86, No.0, pp.831-853, 2018.

[28] T. Y. Cho, *The effect of cultural tour experience on authenticity tourism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08.

[29] M. W. Chi, T. Y. Cho,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ctivity on Leisur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36, No.6, pp.145-165, 2012.

[30] S. M. Cha,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and Culinar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29, No.2, pp.489-510, 2017.

[31] H. S. Cha,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ies and University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 A Case Study of The Craft Fiel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2.

[32] S. N. Choi, *The influence of social tourism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4.

[33] Y. N. Choi,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Citizen Perception on Fairness in Regional Equity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entral Government`s and National Assembly`s fairness",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Vol.23, No.3, pp.63-86. 2016.

[34] J. H. Che, "Comparative Study of " Quality of Life " between Metropolitan City and Its Suburban City - Daegu Metropolitan City and Kyungsan City -",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3, No.4, pp.133-150, 2001.

[35] A. R. Hwang, B. K. Seo, "Policy Procedures and Government Trust: 2014 in Korea",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27, No.4, pp.1193-1214, 2015.

[36]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37] Bianco. W. T., "Trust: Representatives and Constituent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38] Citrin, Jack,.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8, No.3, pp.973-988, 1974.

[39] Diener, E.,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36, No,2, pp.107-127, 1995.

[40] Easton, D.,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3.

[41] Evans, Peter, "Government Action, Soci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Vol.24, No.6, pp.1119-1132, 1996.

[42] Fogler, R. & Greenberg, J., "Procedural Justice: An Analysis of Personnel Systems. In K,Rowland & G, Ferris(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Greenwich: JAI Press*, Vol.3, No.0, pp.146-164, 1985.

[43] Claes Fornell & David F. Larcker,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Vol.18, No.3, pp.382-388, 1981.

[44] Gambetta. 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45] Grimes, M., "Organizing Consent: The Role of Procedural Fairness in Political Trust and Complia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45, No.2, pp.285-315. 2006.

[46] 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N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47] Maloney, W., Smith G., & Stoker, G., "Social Capital and Urban Governance: Adding a More Conceptualized 'Top-Down' Perspective", *Political Studies*, Vol.48, No.4, pp.802-820. 2000.

[48] Miller, Arthur H.,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68, No.3, pp.951-972. 1974.

[49] Myers, D.,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Review*, 23(1):108-125. 1987.

[50] Norris, Pippa, "Introduction: The Growth of Critical Citizens? In P. Norris(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51] Olsen, M., & Merwin, D., "Toward a Methodology for Conducting Social Impact Assessments Using Quality of Life Indicators", *Methodolog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edited by Kurt Finsterbusch and Charles Wolf*, pp.43-63. 1977.

[52] Wanberg, Connie R. Muchinsky, Paul M.,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1, pp.71-80. 1992.

[53] Karen M. Taylor & Nancy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54] Tom R. Tyler,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authorities", *Behavioral Science & the Law*, Vol.19, No.2, pp.215-235. 2001.

[55] Thibaut. J. & Walker. L., "Procedural Justice: A Psychological Analysis", *Hill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1975.

[56] Uslaner, Eric M., "Is Washington Really the problem? In Hibbing, John R. & Theiss-Morse, Elizabeth (eds.), What is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57] Zak, P. J. & Knack, S.,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111, No.470, pp.295-321. 2001.

[58] https://www.edelman.kr/en/newsroom/2020-trust-barometer (accessed Jun. 02, 2021)

[59]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7064 (accessed Jun. 05, 2021)

임 재 훈(Jae Hoon Rhim) [정회원]

- 2017년 2월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02년 3월 ~ 2016년 2월 : EGG 엔터테인먼트 근무
- 2016년 3월 ~ 현재 : 한국다문화방송 국장

〈관심분야〉
대중문화, 다문화복지